

순천만정원박람회 흥행에 세계 도시들 '뜨거운 관심'

자매도시 일본 이즈미시 시장 축하 서한...다음달 전통무용단 공연 佛 낭트시 5년만의 방문 교류 확대 약속...네덜란드 대사, 감사 인사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연일 흥행하면서 아시아-유럽 등 해외로부터 '정원도시'에 대한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순천시의 자매도시인 일본 이즈미시 시장 시이 노키 신이치는 최근 정원박람회 성공 개최를 바라는 서한을 순천시에 보냈다.

이즈미시는 "10년 만에 다시 개최되는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진심으로 축하한다"는 뜻을 전해 왔다.

이즈미시는 다음 달 중순 전통무용단을 보내 박람회장에서 이즈미시의 전통무용을 알리는 공연을 할 예정이다.

이즈미시와 순천시는 흑두루미 보전을 계기로 2012년 자매도시 협약을 맺었다. 두 도시는 청소년 교류 등 문화 관광 분야에서 지속해서 협력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자매결연 10주년을 맞아 이즈미시 행정당이 순천을 방문해 정원박람회장에서 10주년을 축하하는 기념식 제막 행사를 열기도 했다.

지난 11일에는 프랑스 낭트시 부시장 피에르 엠마뉴엘 마레-맨 오른쪽이 박람회장을 둘러보고 있다. <순천시 제공>

마누엘 마레가 이끄는 낭트시 대표단이 정원박람회장을 찾았다.

낭트시의 방문은 2018년 4월 이후 5년 만이다. 두 도시는 정원문화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고 미래 지향적 동반자 관계를 위해 청소년·문화 교류를 확대하기로 약속했다.

대표단은 순천만국가정원 낭트정원을 찾아 "낭트정원이 순천의 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해 감동을 받았다"고 말했다.

낭트정원은 2009년 국제우호 교류사업의 하나로 조성됐다. 이곳에는 낭트시가 직접 프랑스 전통 유물인 '빨래배'를 만들어 설치했다.

낭트정원의 대표 공간은 장미원이다. 또 순천 동천·순천만의 유연한 S자형 곡선과 낭트시를 흐르는 루아르강과 에르드강이 굽이굽이 흐르는 형상을 정원의 중심에 배치했다.

오는 5월 13일부터 6월 11일까지 4주간 낭트시에서 열리는 '10회 한국의 봄' 행사에서는 순천시와 낭트시 시장의 초상화 등을 전시하며 정원박람회

를 알린다.

주말이었던 지난 15일에는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가 '네덜란드 국가의 날'을 맞아 국가정원 네덜란드 정원에서 어린이 그림 대회를 열었다. 전국 초등학교 100여 명이 참가해 그림 실력을 겨뤘고, 요안나 도르너바르트 주한네덜란드 대사가 심사해 참여했다.

'고흐상' 수상자인 순천 이수초등학교 최은경양에게는 네덜란드 항공사 KLM이 후원한 암스테르담 왕복 항공권 2매를 상으로 줬다.

요안나 도르너바르트 주한네덜란드 대사는 "순천시는 2012년과 2022년에 네덜란드 원예박람회인 플로리아드에 참여했고, 네덜란드는 순천의 2013년과 2023년 정원박람회에 함께했다"며 "2023년 박람회를 맞아 네덜란드 정원을 새롭게 꾸민 순천시에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조직위 이사장을 맡은 노관규 순천시장은 "불과 10년 만에 외국 정원을 빼놓지 않고도 우리의 상상력과 문화로 정원을 창조할 수 있는 정도까지 성장했다는 사실에 함께 긍지를 가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원박람회에서는 앞으로 해외 각국의 문화를 알리는 국가의 날 행사가 다채롭게 열릴 예정이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지난 11일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찾은 프랑스 낭트시 대표단(부시장 피에르 엠마뉴엘 마레-맨 오른쪽)이 박람회장을 둘러보고 있다. <순천시 제공>

4년만에...구례 천년 역사 속으로의 초대

19~21일 지리산남악제·군민의날 행사...백일장·노래자랑 등 다채

코로나19로 축소되거나 중단됐던 전남 구례군의 지리산남악제와 군민의날 행사가 4년만에 정상적으로 재개된다.

구례군에 따르면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제79회 지리산남악제와 제42회 군민의날 행사를 구례군 일원에서 개최한다.

'천년의 역사 속으로 떠나는 여행'이라는 주제로 남악사, 화엄사 시설지구, 공설운동장 등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총 4마당 33종목으로 구성했다.

첫째 날인 19일에는 남악사에백일장을 시작으로 군민의날 행사를 축하하기 위해 전 군민 노래자랑이 서시전체육공원 야외무대에서 오후 7시에 열린다. 예선전을 거쳐 선발된 본선 진출자들이 뜨거운 경연을 펼치고, 하동진, 이정옥 등 초청 가수가 출연해 흥을 북돋을 예정이다.

다음날인 20일에는 천년의 역사 동안 국태민안

과 시화연풍을 기원한 남악제제가 남악사에서 봉행된다. 이후 장죽전 녹차시배지에서는 헌공다례가 진행된다. 화엄사 시설지구에서는 지리산남악제를 축하하는 문화예술공연, 숨은 장사를 찾아낼 길거리 씨름대회, 읍면 율놀이와 전통민속놀이, 읍면 농악경연대회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된다.

또 우리차 시음회, 전통떡 만들기, 기념품 만들기 체험 등 관광객을 위한 다양한 체험행사와 한지공예전시, 한국사지작가협회 작품 전시회 등 문화예술 부대행사가 펼쳐진다.

이 밖에도 섬진아트홀에서는 북한의 독특한 문화예술을 경험할 수 있는 백두한라예술단의 공연이 열리는 등 다양한 공연, 전시·체험, 경연 등이 펼쳐진다.

마지막 날인 21일에는 군청 광장에서 구례공설운동장까지 시가행진이 펼쳐져 군민과 관광객에

게 진귀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구례공설운동장에서 각 읍·면별 특색 있는 입장식을 시작으로, 각 읍·면 대표 선수들이 단합해 줄다리기, 400m 계주, 족구, 축구, 게이트볼, 씨름, 단체줄넘기, 한궁 등 각종 체육 경기와 파크골프 시범 경기를 펼치게 된다.

특히 올해는 군민의날 행사 입장식과 연계한 옛 구례읍 시가지 행진과 전통민속예술인 농악의 읍면경연대회 추진으로 다채로운 볼거리와 즐길거리로 더욱 풍성한 축제가 될 예정이다.

22일에는 제32회 전국정가시조경창대회를 열어 전국의 시조 명창들이 구례를 찾아 그동안 갖고 있던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는 시간을 갖는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4년 만에 지리산남악제 및 군민의날 행사를 정상적으로 개최하는 만큼 단순한 축제가 아닌 전통을 되새기며, 구례가 하나로 단합할 수 있는 행사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



보성 벌교갯벌 레저벨벳대회 참가자들이 벨벳배어업을 체험하며 경기에 참여하고 있다. <보성군 제공>

벨벳 타고 '세계유산' 벌교 갯벌 씽씽~

보성군, 레저벨벳대회 다음달 6일 개최...최고 50만원 상금

보성군이 다음 달 6일 벌교갯벌에서 벨벳어업 문화를 알리기 위한 '8회 벌교갯벌 레저벨벳대회'를 연다.

대회는 '바다의 보고, 벌교갯벌에서 답을 찾다'라는 주제로 펼쳐진다.

대회 참가 신청은 오는 5월 5일까지 보성군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할 수 있다. 추진위원회(061-

857-7676) 전화 신청을 하거나 행사 당일 오전 10시부터 현장 접수할 수 있다.

벌교갯벌 레저벨벳대회는 "2023년 보성세계자연유산" (4월 29일~5월 7일) 기간에 개최된다. 보성군은 벨벳을 운동 장비로 개발해 지역을 찾는 관광객에게 갯벌 체험을 제공하고 있다.

보성 벌교갯벌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록됐다. 보성 벨벳어업은 2015년부터 국가중요어업유산 제2호에 이름을 올리며 관리되고 있다.

지난 2010년부터 열린 이 대회는 레저벨벳대회와 갯벌 풋살대회, 청소년 머드댄스 경연대회, 장뚝아·철계·꼬막잡기, 갯벌 보물찾기, 벨벳 조명등 만들기 등으로 구성됐다.

대회는 벌교읍 장양어촌체험마을이 진행하며, 참가비는 전액 무료이다.

부문별로 최고 50만원의 상금을 보성사랑상품권으로 준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순천 역전시장에 신선 수산물 다 있네

시, 28일까지 '싱싱포차' 행사

순천 역전시장에서 싱싱한 수산물을 만날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마련됐다.

순천시는 역세권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싱싱포차 : 봄의 미향' 행사를 14일부터 2주간 순천역 앞 역전시장에서 진행한다.

축제는 금·토요일 오후 4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5시간 동안 운영하며 역전시장 제3주차장에서 열린다.

싱싱포차는 전남 동부권 수산물 최대 집결지로 신선한 식재료를 가장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역전시장의 장점을 살린 축제다. 지난 2019년부터 진행해 비즈니스 모델 보완 등을 거쳐 올해로 4회째를 맞는 지역 대표 수산물 축제로 떠오르고 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주꾸미, 바지락, 키조개, 도다리, 소라 등 순천의 제철 먹거리를 팔고루 맛볼 수 있도록 메뉴로는 ▲삼겹살, 닭다리살, 신선한 해산물 등 육해공의 재료로 알차게 구성된 '역전세트' ▲역전시장의 싱싱한 수산물로 구성된 '싱싱세트' ▲아이들을 위해 가래떡, 소시지, 마시멜로우 등으로 구성된 '도깨비 세트'가 있다.

축제를 위해 역세권주민협의체와 역전시장 상인회가 직접 메뉴 선정과 체험 행사를 기획했다.

체험행사는 ▲온 가족이 숲 피우느 걸 체험하며 직접 간식을 구워 맛볼 수 있는 '우리 가족 숲별 요리사' ▲지역 뮤지션과 함께하는 포차 음악회 '싱싱포차 콘서트' ▲사전 신청을 통해 누구나 노래를 뽐낼 수 있는 '나도 가수다' 등이 준비됐다.

"포스코, 정비 자회사 설립 재검토하라"

광양시의회, 상생방안 마련 촉구 출근길 집회



광양시의회(의장 서영배)가 17일 오전 광양시 컨테이너부두 사거리에서 포스코의 상생협력을 촉구하며 거리시위를 하고 있다. <광양시의회 제공>

"포스코는 일방적인 정비 자회사 설립 결정을 재검토하고 지역 상생협력에 나서야 합니다." 광양시의회(의장 서영배)가 17일 광양시 컨테이너부두 사거리에서 포스코 지역 상생협력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출근길 집회를 열었다.

시의회에 따르면 서영배 의장과 시의원, 시민사회단체 등 20여 명이 참여했다.

의원들은 ▲포스코는 상생협력 방안을 즉시 마련할 것 ▲일방적인 정비 자회사 설립 결정을 재검

토할 것 ▲포스코 홀딩스는 미래 신산업을 광양시에 적극 투자할 것 등의 내용이 적힌 현수막을 들고 거리 시위를 펼쳤다.

서영배 의장은 "포스코는 시민들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면서 "의회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할 때까지 시위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광양시의회는 지난 12일 광양제철소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이후 본부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

GS칼텍스, 예술로 청소년 마음 치유

선도조건부 기소유에 청소년 대상 '마음톡톡' 개강...상담·음악치료

GS칼텍스(대표 허세홍 사장)와 광주지점 순천지점(지점장 김운섭)이 예술 치유로 청소년을 선도하는 '마음톡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GS칼텍스는 여수 예술마루와 순천시 청소년 문화의집에서 '2023년 전남동부지역 선도조건부 기소유에 청소년 대상 마음톡톡 프로그램' 개강식을 갖고 운영을 시작했다.

GS칼텍스와 순천지점은 개강 수업에서 예술 치유 프로그램의 목적과 세부 일정, 출결 관리 등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함께 청소년과 보호자 상담을 진행했다. /여수=김창화 기자 동부취재본부장 chkim@

예술 치유 프로그램은 국내 최고 수준의 음악 치유 전문기관인 이화여대 대학원 음악치료학과에서 전담한다. 개강 수업은 순천지점,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전남동부지역협의회,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음악치료학과 및 GS칼텍스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올해는 총 30여 명의 청소년들이 상·하반기로 나누어 GS칼텍스 예술마루와 순천시 청소년 문화의집에서 매주 1회 70분씩, 전체 12회 일정 수업이 이뤄진다. 이화여대 대학원 음악치료사들의 지도하에 작사, 작곡, 악기 연주 등 음악을 활용한 심리·정서 치료를 경험하게 된다. 연말에는 GS칼텍스 예술마루에서 보호자와 프로그램 관계자들을 초청해 합동 공연을 펼칠 예정이다.